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강보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이 논문은 제70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9.1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I. 머리말
- II.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 III.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목표
- IV. 맺음말

I. 머리말

통일이 국내외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을 지향하지 않는 한, 남북이 완전한 하나의 국가가 되기까지는 남북의 합의하에 점진적·단계적 통일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통일 과도기’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과도기’라는 용어는 통일 담론에서도 공식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어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분단 시기-통일 과도기-통일 국가 시기’의 과정을 거쳐 통일이 완성된다고 전제하고 통일 전의 특정 기간을 ‘통일 과도기’로 설정하였다.¹⁾ 이를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

1) ‘통일 과도기’를 통일 후의 일정 기간으로 설정하는 논의도 있다. 대표적으로 김진숙·박순경·김창환·황인표·송지운·신효진 외(2014)에서는 교육 측면에서의 ‘통일 후 과도기’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통일 후 통일 한국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는 ‘통일 전 과도기’와 ‘통일 후 과도기’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의 ‘통일 과도기’는 전자의 경우를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교육의 효용성과 시급성을 생각할 때 정치적 통일 이전에 교육의 관점에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²⁾에 적용하면 ‘화해·협력 단계’와 ‘남북연합 단계’가 통일 과도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학계에서는 ‘분단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주로 논의하여 왔다.³⁾ 그래서 남한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어교육을 모색해 왔고 그 결과,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와 극복 방안 모색이 교육 내용의 핵심이 되었다.⁴⁾ 그러나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세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과 두 차례의 북미 정상 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남북의 화해·협력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시작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통일 과도기에 필요한 국어교육을 본격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성이 커졌다.

통일 과도기는 남북이 아직 하나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남북이 각자의 체제와 이념에 따라 국어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에는 지금처럼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어교육을 하면서,

-
-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단계(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분단상태 평화적 관리), 남북연합 단계(교류협력 제도화, 상호 신뢰 구축, 민족 동질화 추진), 1민족 1국가의 통일 국가 완성 단계(통일헌법에 따른 총선 실시, 통일 국회 구성 및 통일 정부 수립)로 구성되어 있다(통일교육원, 2018: 132).
 - 3) 통일 대비 국어교육 관련 선행 연구 분석은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2018), 오현아(2019)를 참고.
 - 4)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법 영역에서 남북한 언어를 명시적으로 다룬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교육과정/학년/영역).
 -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안다. (7차/9학년/국어)
 -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비교한다. (2007 개정/8학년/국어)
 -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2007 개정/고등학교/문법)
 - 남북한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 회복 방안을 탐구한다. (2009 개정/고등학교/독서와 문법II)
 -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방안을 탐구한다. (2011 개정/고등학교/독서와 문법)
 -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2015 개정/중학교 1~3학년군/국어)

동시에 남북한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이하 ‘공통 국어’)을 개발하여 보충 교재로 사용함으로써 통일 과도기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가야 한다.

본고에서는 ‘공통 국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공통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공통 국어’가 본격적으로 처음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과목의 ‘성격’을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공통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시하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제안해 볼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통 국어’가 사용되는 통일 과도기의 의사소통 상황을 먼저 예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 과도기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거나 다양한 매체(방송, 신문, 영화, 드라마, 인터넷, SNS 등)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담화와 글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일이 지금과 같은 분단 시기에서의 소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이다. 또한, 분단 시기에는 서로의 언어문화⁵⁾에 대해 제한적이고 통제된 접근만이 가능했다면 통일 과도기에는 있는 그대로의, 가공되지 않은 언어문화를 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통일 과도기의 의사소통 상황을 전제로, 통일 과도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공통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를 다음 장에서 차례대로 살펴본다.

5) 본고에서 ‘언어문화’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라 ‘일상의 언어생활 또는 언론, 문학, 출판 등 언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문화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용하였다. 즉, ‘언어문화’는 ‘언어’와 ‘언어로 이루어지는 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용어이다. 기존의 남북 언어 관련 논의에서처럼 ‘언어’에만 한정하여 논의하는 것은 남북 간 원활한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보아 ‘언어문화’를 강조하였다. 남북 간의 실제적인 의사소통을 생각할 때 ‘언어문화’에는 규범적 언어문화뿐만 아니라 일상적이며 비규범적인 언어문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II.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공통 국어’의 성격은, ‘공통 국어’가 ‘통일 과도기에 남북의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라는 점에 기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 점을 고려할 때 ‘공통 국어’가 다음 4가지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보고, 각 속성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상술해 보기로 한다.

1. 남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추구

전술하였듯이 통일 과도기에는 남북한 사람들이 다양한 상대와, 다양하고도 실제적인 담화 및 글을 통하여, 다양한 목적을 띠고 서로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언제든지 야기될 수 있다.⁶⁾ 따라서 통일 과도기에는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오해와 편견 없이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공통 국어’는 남북의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남북의 언어문화가 지닌 공통점에 대해 이해하면 서도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의 동질성에 대한 이해는 남북이 같은 언어문화를 공유하는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가치가 충분하다. 그러나 남북의 소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남북 언어문

6) 통일 전후의 의사소통상의 갈등은 독일의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최경은(2003: 74)에 따르면 독일은 통일 후에 동서독 시민들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의사소통의 갈등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동질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다.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서로 오해 없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질성을 보여 주는 내용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질성을 다룰 때, 그 범위와 내용이 지금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는 주로 어휘와 규범으로 대표되는 문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 주는 것이 남북의 문법 차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보면 문법 차이에 대한 이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화법, 독서, 작문 등과 관련된 남북한 의사소통의 방식과 문화 차이, 그리고 남북 주요 문학작품의 이해와 해석의 차이도 교육 내용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연구가 축적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 내용으로 삼을 연구 결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북한 화법 차이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화행 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남북의 독서, 작문과 관련된 소통 방식과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정보 전달, 설득, 친교·정서 표현과 관련하여 남북의 담화와 글,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떻게 같고 다른지⁷⁾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그중 남북 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내용은 ‘공통 국어’에 포함되어야 한다.

7) 담화 방식의 차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Hellmann(1991)에서는 동서독 의사소통의 방식 차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보다 넓고 좋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구동독의 경우에는 동독의 주택국에 가서 자신이 처한 비참한 주택 상황을 설명하거나 집에 비해 아이가 많음을 강조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권장할 만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독의 집주인과의 대화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서독에서는 자기 자신이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며 그래서 렌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조용한 세입자임을 밝히고, 가능하다면 아이가 적거나 없음을 알리는 방법이 집을 구하는 데 효과적이다.” (Stevenson, P., 2006; 신명선·권순희·강보선·양수경·정성훈·정호성 외, 2012 재인용)

또한 남북이 문학작품을 매개로 소통하는 경우에 특정 문학작품에 대한 남북한 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이해,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중요하게 인정받는 문학작품에 대한 선이해 등이 중요하다(최홍원, 2013)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요 내용도 ‘공통 국어’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배려 태도 형성

남북한 언어문화의 차이는 남북한 사람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자국의 언어문화와 차이를 보이는 상대의 언어문화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심화되면 배타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에는 남북 간 소통을 위해 두 가지 태도가 요구된다. 먼저, 상대의 언어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자국의 언어문화는 수준이 높고 보편적인 반면, 상대의 언어문화는 수준이 낮고 문제가 많다는 식의 우월의식을 갖는 것은 소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자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과 정서를 배려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이 자국의 언어문화를 존중해 주기만을 요구하기보다는, 자국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⁸⁾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국의 언어문화를 상대방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 배려적 태도에 대해서는 강조가 덜 된 만큼 이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

-
- 8) 남북이 상대방의 언어문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중 일부를 소개하면, 남한 사람들은 북한말이 강하고 낮설며 순박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고 있으며, 북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한다’, ‘순우리말을 많이 쓴다’, ‘공격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한다(박종선·도원영·최호철·최경봉·한정미·이상혁 외, 2016).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분명하게 표현하는 대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예의상 하는 빈말 등을 많이 한다고 인식한다(양수경·권순희, 2007).

남북의 언어문화 차이 중에는 규범의 차이와 같이 이념과 무관한 차이도 있지만, 남북의 체제와 이념이 반영된 차이도 존재한다. 특히, 남한에 비해 북한은 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력한 교화(indoctrination)의 도구로 활용(김진숙·김민성·박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 2016)하고 있으며, 국어교육을 통하여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고양시키고자 노력(강보선·김진숙·박수련, 2016)하기 때문에 북한의 언어문화에는 이념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은 북한의 언어문화를 접할 때 김일성 일가와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표현, 북한이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된다. 물론 북한 사람들도 남한의 언어문화를 접하면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⁹⁾ 따라서 ‘공통 국어’에서는 자국의 언어문화 중에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상대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국의 언어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배려적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요컨대, 남북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상대방의 인식과 정서를 배려하여 자국의 언어문화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9) 북한은 남한의 언어문화 중 외래어 남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다음 기사는 이를 잘 보여 준다.

“북한이 한글날인 9일 남한의 외래어 남용 실태를 비난하며 이 같은 현상이 남북통일에 커다란 ‘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우리 말과 글이 천시당하는 비극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고유한 우리 말과 글이 짓밟히고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조국통일 위업에 커다란 해독(害毒)”이라고 주장했다.”(디지털뉴스팀, 2011. 10. 9.).

3. 남북한 언어문화의 통합 지향

통일 단계를 따른다면 국어 과목은 3단계 과정에 맞게 변화하게 된다. 즉, 국어 과목은 ‘분단 시기의 국어 과목(남북의 독자적 ‘국어’) → 통일 과도기의 국어 과목(남북의 독자적 ‘국어’ + ‘공통 국어’) → 통일 국가 시기의 국어 과목(‘통일 국어’)'으로 단계를 거쳐 변화한다. 이 단계에 따르면 남북의 학습자는 ‘공통 국어’를 배운 뒤에 ‘통일 국어’를 학습하게 된다.

따라서 ‘공통 국어’는 남북의 학습자들이 ‘통일 국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일 국어’가 지향하는 가치를 ‘공통 국어’가 미리 반영함으로써, ‘공통 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곧 ‘통일 국어’를 미리 학습하는 것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통일 국어’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국어교육 내에서 ‘통일 국어’의 지향 가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연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통일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 가치를 논의한 <표 1>을 참고하여 ‘통일 국어’의 지향 가치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표 1> 통일 국가 교육과정의 지향 가치와 그 의미(김진숙 외, 2014: 103)

가치		의미
미래	미래성	통일 한국이 처한 환경에 터하면서도 발전과 개혁을 위한 미래 지향성
국제	보편성	글로벌 스탠다드로서의 질 높은 교육과정
통합	특수성	남한과 북한의 통합의 결과인 통일 한국 교육과정

<표 1>에 따르면 통일 국가의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치는 ‘미래성, 보편성, 특수성’이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치가 개별 교과목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통일 국어’ 또한 미래성, 보편성,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 국어’가 지닐 미래성, 보편성, 특수성 중에서 ‘공통 국어’가 미리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특수성’이다. ‘미래성’과 ‘보편성’이라는 가치는 ‘공통 국어’가 아니더라도 남북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고 현재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¹⁰⁾

한편, ‘특수성’은 ‘통일 한국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과정’(김진숙 외, 2014)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운용하는 교육과정에서는 반영되기 힘들고 ‘공통 국어’에서 중요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사회 통합’이라는 ‘특수성’의 의미를 생각할 때, ‘공통 국어’가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공통 국어’가 남북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통 국어’가 남북의 사회 통합, 특히 통일 과도기의 남북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통 국어’에서 ‘남북한 언어문화 통합’¹¹⁾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가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내적 통합을 이끄는 언어문화가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통 국어’에서는 남북의 학습자들이 남북의 언어문화 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남북의 언어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통합 과정에 능동적이면서 열린 자세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열린 자세’를 강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기준으로 낯선 것을 통합하기를 원하

10) 남한의 교육과정은 항상 미래성과 보편성의 가치를 추구해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핵심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추구한 것도 미래성과 보편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에는 북한도 김정은 시대의 교육 개혁을 통해 ‘세계적 추세’의 강조, 교육 정보화 추진, 통합형 교육과정 도입, 사고능력 함양, 탐구·발견식 교수 방법 등을 추구(조정아·이교덕·강호제·정재관, 2015: 18)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미래성’과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

11) ‘통합’은 ‘통일’과 그 의미가 다르다. ‘통일’이 어느 한쪽으로의 단일화를 지향한다면, ‘통합’은 단일화뿐만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같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언어문화 통일’이 아니라 ‘언어문화 통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말과 북한말을 통합한다면 통합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박종선 외, 2016)에서도 잘 드러난다.

〈표 2〉 남한말과 북한말 통합의 기준(박종선 외, 2016: 151) (단위: %)

구분	사례수 (명)	남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한다	북한말을 기준으로 통합한다	모름/무응답	계
일반인	(2,021)	78.2	21.0	0.7	0.0	100.0
접촉국민	(200)	50.0	45.5	2.5	2.0	100.0
북한이탈주민	(305)	65.9	31.8	2.0	0.3	100.0

*일반인: 남한 주민
 *접촉국민: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일반인
 *북한이탈주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표 2〉의 결과를 보면, 상당수의 남한 사람들이 남한말을 기준으로 남북한 언어를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 사람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언어문화 통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¹²⁾ 남북한 언어문화 통합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의 일방적 언어문화 통합은 다른 쪽의 사람들에게 불만감과 저항감을 심어 주게 된다. 따라서 ‘공통 국어’에서는 바람직한 언어문화 통합을 위해서 학습자들이 자국의 언어문화만을 기준으로 남북의 언어문화를 통합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한걸음 벗어나 열린 자세로 바람직한 언어문화 통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

12)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동독 시민들은 서독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도 했지만 일방적 언어 통합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불만은 동독 출신 시민들이 구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서와 어울려 구동독 어휘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언어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최경은, 2003).

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¹³⁾

4. 남북한 국어교육의 계승 및 보완

‘공통 국어’는 남북한의 국어교육을 보충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도 이들이 다루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먼저, ‘공통 국어’가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만약 ‘공통 국어’가 기존의 남북한 국어교육과 동떨어져 존재한다면 ‘공통 국어’를 교수·학습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남북의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의 국어교육 현장에서 ‘공통 국어’가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공통 국어’가 남북의 교사와 학습자 모두에게 큰 부담 없이 교수·학습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나타나는 형식적·내용적 공통점은 계승하는 것이 좋다.¹⁴⁾

문제는 남북 국어교육에서 이질적인 것을 ‘공통 국어’에서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를 다. 계승의 방식은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고 있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남북이 합의한 어휘 통합 방안¹⁵⁾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방

13) 남북의 학습자들이 열린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언어문화를 많이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표 2>에서 북한이탈주민들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접촉국민’의 경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남북 언어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에 가깝게 나타난 것을 볼 때, 북한의 언어문화를 접해 본 경험이 언어 통합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남북한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에서 보이는 공통점에 대해서는 김진숙 외(2016, 2017)를 참고.

15) ‘겨레말큰사전’의 남북 어휘 통합의 방안으로 ① 남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② 북한 어휘로 단일화하거나, ③ 제3의 새로운 어휘를 제시하거나, ④ 남한과 북한의 어휘를 복수 어휘로 선정하는 방안이 있다(권재일, 2015).

안을 참고하면 남북 국어교육에서 형식상 혹은 내용상 차이가 나는 경우, 남한의 방식을 계승하거나, 북한의 방식을 계승하거나, 남북한의 방식을 절충하여 계승하거나, 제3의 방식을 새롭게 만들어 계승하거나, 남한과 북한의 방식을 복수로 계승할 수 있다.

가령 남한은 학교급과 학년에 상관없이 국어과의 하위 영역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나누고 있으나 북한은 학교급 혹은 학년에 따라서 하위 영역 구분을 달리하고 있어 계승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¹⁶⁾ 이때 ‘공통 국어’에서는 남한의 방식을 따르거나 북한의 방식을 따를 수도 있고, 초등학교는 북한식을 따르고 중등학교는 남한식(혹은 그 반대)을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혹은 통일 과도기에 사용되는 ‘공통 국어’의 성격에 맞게 하위 영역을 새롭게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공통 국어’가 남북한 국어교육을 보완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공통 국어’는 보충 과목이기 때문에 기존의 남북한 국어교육에서 공통적으로 교육하는 내용을 반복하여 다룰 필요가 없다. 기존의 남북 국어교육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지만 통일 과도기에는 중요한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법교육의 경우, 남북의 문법교육은 동일한 학습 요소를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공통 국어’에서 이들 요소를 다시 반복하여 가르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남북의 소통을 위하여 ‘통일 과도기’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가치가 있는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예컨대, 규범과 관련하여서는 남북의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표기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¹⁷⁾

16) 남북한 국어과의 하위 영역 차이에 대해서는 강보선 외(2016: 11-12)를 참고.

17) 특히 남북의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표기 차이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과정에서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를 하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대영, 2018: 111). 따라서 통일 과도기에는 ‘공통 국어’를 통하여 남북의 학습자들이 서로의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표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5. ‘공통 국어’의 성격 설정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공통 국어’는 다음 네 가지 속성을 고려하여 과목의 성격이 설정되어야 한다.

첫째, ‘공통 국어’는 남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둘째, ‘공통 국어’는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셋째, ‘공통 국어’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넷째, ‘공통 국어’는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는 과목이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들 속성을 바탕으로 ‘공통 국어’의 성격(안)을 설정해 보기로 한다. 이때, ‘공통 국어’가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는 과목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현재 남북한 국어 과목의 성격 제시 방식의 공통점을 참고해서 ‘공통 국어’의 성격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과목의 성격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공통 교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성격’ 항목에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격’ 항목의 내용을 문단별로 보면, 1문단에서는 국어의 가치 및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2문단에서는 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의 성격과 ‘국어’ 학습을 통해 기를 수 있는 역량을, 3문단에서는 국어과 교과 역량의 유형과 개념을, 4문단에서는 ‘국어’ 교과의 하위 영역을, 5문단에서는 다른 교과 및 비교과 활동과의 연계성을 다루고 있다(김창원·가은아·서영진·구본관·김기훈·김유미 외, 2015: 83-84). 이처럼 ‘성격’ 항목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어 과목의 성격

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초·중·고 공통 과목인 ‘국어’는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국어 사용을 바탕으로 하여 국어 발전과 국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가치 있는 국어 활동을 통해 바람직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한편, 북한의 교육과정인 2013 교육강령¹⁸⁾에서는 국어 과목의 ‘성격’을 학교급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교육위원회, 2013 ㄱ; 교육위원회, 2013 ㄴ, 교육위원회, 2013 ㄷ).

〈표 3〉 북한의 학교급별 국어 과목의 성격

학교급	성격
소학교	국어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뿐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
초급 중학교	초급중학교 국어과목은 학생들에게 언어,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실천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줄뿐아니라 그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문화정서적으로 교양하고 사고력도 키워주게 된다.
고급 중학교	국어문학과목은 학생들에게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주고 다양한 형태의 글(작품)을 통하여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뿐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

이처럼 남북한 국어 과목의 성격을 보면, 비록 성격의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국어 과목이 무엇을 추구하는 과목인지를 한 문단 수준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통 국어’의 ‘성격’도 남북한 국어 과목의 성격 제시 방식을 계승하여 ‘공통 국어’가 무엇을 추구하는 과목인지를 한 문단 수준으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8) 북한의 2013 교육강령에서는 ‘성격’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국어 교수요강의 ‘머리말’ 항목에 국어 과목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북한에서 ‘교육강령’은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교과 교육과정은 ‘교수요강’으로 부른다.

앞서 밝힌 ‘공통 국어’의 4가지 속성을 종합하여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공통 국어’는 남북이 서로의 언어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서로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여 남북 언어문화의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며, 통일 과도기에 맞게 남북의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 보완하는 과목이다.

III.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목표

일반적으로 과목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 국어’의 목표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²⁰⁾ 본고에서는 남북한 국어 과목의 목표 설정 방식을 계승한다는 취지에서 현행 남북한 국어 과목의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공통 국어’의 목표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19) 본고에서는 학교급별로 성격을 제시한 북한의 방식이 아니라, 학교급 공통으로 성격을 제시한 남한의 방식을 계승하였다. 북한처럼 학교급별로 성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급 공통으로 추구해야 할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공통 국어’의 목표를 설정할 때도 남한의 방식을 계승하였음을 밝혀 둔다.

20) 이인제·정구향·송현경·이재기·문영진·조용기 외(2005: 142-143)에 따르면 과목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공통 교육과정의 ‘국어’ 과목과 선택 과목별로 목표 진술을 할 수도 있으며, 전체를 묶어 거시적인 국면에서 단일한 목표를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전체 목표를 제시하고 과목별 세부 목표로 진술할 수도 있으며, 전체 목표는 제시하지 않고 과목별 목표만 제시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별로 목표를 진술할 수도 있고, 이를 활동과 내용 영역으로 나누어 상위 차원에서 통합하여 목표를 진술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 남북한 국어 과목의 목표 설정 방식

남북의 현행 교육과정에서 남한은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북한은 ‘교수목적’과 ‘교수목표’로 목표를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남한의 ‘총괄 목표’와 북한의 ‘교수목적’이, 남한의 ‘세부 목표’와 북한의 ‘교수목표’가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²¹⁾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총괄 목표와 북한의 2013 교육강령에 제시된 교수목적²²⁾을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남북한 학교급별 국어 과목의 총괄 목표(교수목적)

	학교급	목표
남한	초·중·고	국어로 이루어지는 이해·표현 활동 및 문법과 문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품위 있고 개성 있는 국어를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향유하면서 국어의 발전과 국어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북한	소학교	(품성과 태도) 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지식)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초급 중학교	(품성과 태도) 우리 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아름답고 고상한 정서를 키워주며 (지식)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정연한 지식과 (능력) 기본적으로 완성된 언어능력을 소유시켜 고급중학교 교육을 받을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주는데 있다.
	고급 중학교	(품성과 태도) 우리 말과 글, 다양한 형태의 문학작품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혁명적이고 풍부한 정서를 키워주며 (능력) 완성된 언어능력을 갖추어주고 (지식) 문학일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튼튼히 선 강성조선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

21) 김현호(2016)에서는 ‘교수목적’을 ‘총적목표’라는 용어로 바꾸어 기술하면서 그 의미를 국어 과목 학습을 통하여 도달하여야 할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교수목적’은 남한의 ‘총괄 목표’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2) 김현호(2016)에 따르면 북한의 교수목적은 품성과 태도, 지식, 능력형성을 위한 목표로 구분되어 있다. 이를 <표 4>의 괄호 속에 반영하여 표시하였다.

〈표 4〉를 보면, 남한은 학교급별 국어 과목의 총괄 목표가 동일한 반면, 북한은 학교급별로 국어 과목의 교수목적을 조금씩 달리 제시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이 총괄 목표(교수목적)를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설정하고 있는 것은 공통적이다. 즉, 남한은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하여 총괄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북한도 품성과 태도, 지식, 능력형성을 종합하여 교수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능력형성’은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글짓기 능력, 읽기 능력’의 형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²³⁾ 북한의 ‘품성과 태도, 지식, 능력형성’은 남한의 ‘태도, 지식, 기능’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남북이 국어 과목에서 추구하는 총괄 목표(교수목적)는 다르지만, 국어 과목의 총괄 목표(교수목적)를 설정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지식),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기능),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태도)를 종합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공통 국어’가 남북의 국어교육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공통 국어’의 총괄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공통 국어’의 목표 설정

1절을 토대로, ‘공통 국어’의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떤 지식, 어떤 기능, 어떤 태도를 추구할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장에서 고찰한 ‘공통 국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공통 국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확히, 그리고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해의 범위에는 기존에

23) 북한의 ‘능력형성’은 ‘언어실천능력형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북한의 교육강령에 따르면 ‘언어실천능력’은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읽기 능력, 글짓기 능력으로 구성된다(교육위원회, 2013 ㄱ, 2013 ㄴ, 2013 ㄷ).

많이 강조된 문법뿐만 아니라 화법, 작문, 독서, 문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규범적·일상적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능의 측면에서는 남북 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여기서 정확성 외에 적절성이 중요한 것은 남한의 의사소통 방식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하거나, 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이 남한 사람들에게는 부적절한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에는 정확성만으로는 온전한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이다.²⁴⁾

끝으로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하게 여기는 자국의 언어문화를 강요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국의 언어문화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배려의 정신이 중요하다.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현재의 남북 언어문화를 통합해 나가는 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도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의 언어문화가 통합되어야지만 모든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온전한 통일 국가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통합 국어’의 총괄 목표(안)을 지식, 기능, 태도를 종합하여 설정해 본다. 이때 남한의 2015 교육과정에서 총괄 목표를 기술한 방식(〈표 4〉 참조)을 활용하기로 한다.

남북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남북 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24) 적절성의 대표적인 예로 남북한 화행 사용의 적절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감사하기, 사과하기, 요청하기, 거절하기, 칭찬하기 등의 화행은 남북 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양수경·권순희, 2007),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화행을 표현할 때 화행의 적절성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거절 화행을 사용할 때,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돌려서 거절하는 간접 화행을 사용하게 되면 직접 화행에 익숙한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이 거절을 한 것인지, 수락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황 맥락을 고려할 때 간접적인 거절 화행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맥락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통하며,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남북 언어문화 통합에 이바지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총괄 목표를 바탕으로 세부 목표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15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²⁵⁾ 기술 방식을 참고하되, 2015 교육과정에서 ‘기능-지식-태도’의 순으로 세부 목표가 제시된 것을 ‘공통 국어’에서는 ‘태도-기능-지식’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통일 과도기의 남북 간 의사소통에서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 통일 과도기 국어의 가치와 남북 간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며 남북 언어문화 통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나. 남북에서 생산되고 수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남북의 사람들 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다.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과 관련된 남북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25) 2015 교육과정의 세부 목표는 아래와 같다(교육부, 2015). 2011 교육과정에서는 지식-기능-태도의 순으로 제시되었으나, 2015 교육과정에서는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능-지식-태도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가. 다양한 유형의 담화, 글, 작품을 정확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소통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익힌다.

나.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활동 및 문법 탐구와 문학 향유에 도움이 되는 기본 지식을 갖춘다.

다. 국어의 가치와 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국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른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통일 과도기에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고찰해 보았다.

먼저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하기 위해 ‘공통 국어’가 통일 과도기에 남북의 학습자들이 공통으로 학습하는 보충 과목이라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공통 국어’의 속성을 첫째, 남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 둘째,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목, 셋째, 남북한 언어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목, 넷째,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는 과목으로 보고, 이를 종합하여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통 국어’의 성격을 반영하여 ‘공통 국어’의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기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통하는 것,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남북 언어문화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국어는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점에서 서로의 언어문화를 이해하지 않고는 남북 간에 온전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에는 남북이 서로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남북한 언어문화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남북이 함께 ‘공통 국어’를 개발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1.31. 투고되었으며, 2020.2.19. 심사가 시작되어 2020.3.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자료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교육위원회(2013ㄱ),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소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2013ㄴ),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초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2013ㄷ),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고급중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 논저

강보선(2018), 「북한 초급중학교의 학교문법 내용 분석」, 『국어교육』 161, 119-157.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 『우리말글』 72, 31-65.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징」, 『국어교육연구』 62, 1-34.
고대영(2018), 「남북 통일 사전 편찬 사업의 방향과 전망 - “겨레말큰사전”을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 50, 97-119.
권순희·주재우·김윤정·변경가·정경화(2018), 『통일 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국어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서울: (주)천재교육.
권재일(2015), 「분단 70년의 남북한 언어」, 『지식의 지평』 19, 1-17, 서울: 대우재단.
김진숙·박순경·김창현·황인표·송지윤·신효진·이나연(2014), 『통일 및 미래사회 대비 남북한 초·중등학교의 통합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김민성·박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2016),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I):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박순경·이민형·강보선·주주자·심광택·김한중·이인정·이나연(2017),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II): 총론, 중등 국어과, 중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창원·가은아·서영진·구본관·김기훈·김유미·김잔디·김정우·김혜정·류수열·민병곤·박기범·박영민·박재현·박정미·송승훈·안부영·양경희·오리사·이선희·이재승·장은주·전은주·한원희(2015),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II - 국어과 교육과정』,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현호(2016), 『국어교수설계』,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디지털뉴스팀(2011. 10. 9.), 北 “남한엔 외래어·잡탕말 만연…통일에 독 될 것”, 경향신문, 검색일자 2020. 1 25., 사이트 주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110091626431#csidxebbe6bbb6df3924baf3b976c009ddeb.

- 박종선·도원영·최호철·최경봉·한정미·이상혁·강진웅·이대성 (2016), 『2016년 남북 언어 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국립국어원.
- 신명선·권순희·강보선·양수경·정성훈·정호성·남건우(2012),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서울: 박이정.
- 양수경·권순희(2007), 「새터민 면담을 통한 남북한 화법 차이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28, 459-483.
- 오현아(2019), 「통일 대비 남북 교과 전문 용어 비교 분석 연구에 대한 시론」, 『우리말글』 82, 59-96.
- 이인제·정구향·송현정·이재기·문영진·조용기·김정우·민병곤·유영희·정현선·이수정 (2005),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조정아·이교택·강호제·정채관(2015),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교육정책, 교육과정, 교과서』, 서울: 통일연구원.
- 최경은(2003), 「통일 이후 동서독 독일어의 통합 과정」, 『독일언어문학』 21, 55-79.
- 최홍원(2013), 「북한의 고전문학 교육 내용 연구: 교과서 수록 작품의 선정 배경과 맥락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25, 53-93.
- 통일교육원(2018),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 Stevenson, P. (2006), *Language and German Disunity: A Sociolinguistic History of East and West in Germany, 1945-200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강보선

본고의 목적은 ‘통일 과도기’에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이하 ‘공통 국어’)의 성격과 목표를 고찰하는 것이다. 먼저 ‘공통 국어’의 속성을 첫째, 남북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과목, 둘째, 서로의 언어문화에 대한 상호 존중 및 배려의 태도를 형성하는 과목, 셋째, 남북한 언어문화의 통합을 지향하는 과목, 넷째, 남북한 국어교육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보완하는 과목으로 보고, 이를 종합하여 ‘공통 국어’의 성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통 국어’의 목표를 지식, 기능, 태도의 측면에서 설정하였다. 지식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언어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기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사람들 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정확하고 적절하게 국어를 사용하는 것, 태도의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언어문화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남북 언어문화 통합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총괄 목표’와 ‘세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어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 공통 국어, 언어문화, 언어문화 통합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Inter-Korean Common Korean Language’ Cours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Unification.

Kang Bosu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the ‘Inter-Korean common Korean’ course (hereafter, ‘common Korean’) that the two Koreas will commonly use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unification. First of all, we suggest the characteristics of ‘common Korean’ as (1) the course that put mutual understanding of language cul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as the priority; (2) that is forming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each other’s language culture; (3) that is aimed at integrating the two Korean language cultures; and (4) that should inherit and complement Korean language edu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n addition, the objectives of the common language was set in terms of knowledge, function and attitude. This study suggests the objectives of the course as (1) understanding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language culture in terms of knowledge; (2) using the Korean language correctly and appropriately in various communication situ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function; and (3) respecting the other’s language culture and making a sense of attitude toward and contributing to the integration of language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in terms of attitude.

KEYWORDS Transition Period to Unification, Inter-Korean Common Korean Language Course, Common Korean, Language Culture, Unification of Language Culture